

함박눈 '펑펑' "스님 썰매 출동"

세상의 얼룩을 뒤덮는 함박눈에 천진불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 미소가 아름다워 스님이 썰매를 꺼내들었다. 스님 썰매를 타기 위해 줄지어선 천진불들에겐 동장군도 놀잇감이다.

함박눈이 내린 1월 9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금선사 연꽃어린이집 원생들이 스님이 끌어주는 눈썰매를 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함양군

제주 4.3 희생자 달랠 영산재 열린다

조계종, 4.3 70주기 광화문 행사서 봉행 추진

유족회, 설정 스님 예방서 특별법 제정 등 도움 요청

조계종 측 흔쾌히 수락해

4.3사건 추모 주간 맞아서 교구본사에 추모 현수막도

신성민 · 박진형 기자

올해로 70주기를 맞는 제주 4.3사건을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불교계가 나선다. 특히 조계종은 제주와 광화문서 예정된 제주 4.3사건 추모행사에서 영산재를 봉행하며, 추념일 즈음 교구본사에 추모 현수막들도 게재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들은 제주 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와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가 1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면서 가시화 됐다.

절박한 유족회, 불교에 도움 요청

유족회와 범국민위는 이날 예방 자리서 설정 스님에게 오는 4월 3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추모행사 본식에 참여줄 것을 비롯해 불교 차원의 추모 · 위령행사, 특별법 제정에 도움 등을 요청했다.

이날 양윤경 유족회장은 "70년이 지났고, 더 이상 유족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시기가 지나면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스님께서 제정에 힘써주셨으면 한다. 또한 제주서 열리는 70주년 행사에도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특별법 제정에 함께 노력할 것과 4월 3일 제주 방문을 원칙으로 일정을 조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실무진들의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사회부장 진각 스님은 "제주와 함께 광화문서 진행되는 제주 4.3사건 추모행사에서 유족회 등이 요청한 위령 · 천도재를 영산재로 확대해 봉행하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영산재를 통해 4.3 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고혼들을 천도하고 화해 ·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조계종은 제주 4.3사건 추모 기간에 맞춰 전국 교구본사에 추모 현수막을 게재하고, 위령재 봉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1월 11일 열린 설정 스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건으로 배포된 세부 계획에도 제주 4.3사건 70주기 평화기원법회와 진상규명 공동 촉구 등이 계획으로 담겼다.

제주불교계 노력도 이어진다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추모 행렬에 동참하는 것은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 당시 16명의 스님이 희생됐으며, 37개소의 사찰 중 본원사(제주 함덕리)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희생된 스님 중에는 제주 관음사 주지였던 오이화 스님도 있었다. 특히 스님들은 유족이 없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인 제주불교계도 제주 4.3사건 70주기 사업들을 전개한다. 제주불교연합회장 관효 스님은 1월 6일 열린 연합회 신년하례법회서 "저항할 능력이 없는 무고한 양민들이 집단으로 학살된 4.3 70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4.3 진상을 바로 밝히고 추모하는 위령재를 봉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제주 4.3 사건 당시 최대, 최종 격전지였던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허운)는 도차원서 진행되는 제주 4.3 둘레길과 더불어 관음사 4.3 둘레길 조성에 나선다. 또한, 새로 시작되는 진상 조사에서 관음사를 비롯한 제주 불교계의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허운 스님은 "특별법 제정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대외적 행보를 함께 하겠다"면서 "최대이자 최종 격전지였던 관음사에 평화공원과 교육장을 설립해 시민들에게 인권 · 평화 인식을 배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 스님 1주기… 사회 · 교계 추모물결

"적폐청산 촛불 함께한 수행자… 극락왕생 하시길"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의 1주기를 맞아 사회 · 교계 추모가 잇달았다. 정원 스님 소신 1주기 추모위원회가 1월 6일 광화문 광장서 추모제를 연 데 이어 7일 서울 금선사서 정원 스님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광화문 광장서 열린 추모제에는 일반 시민들 100여 명이 참여했다. 추모위원회는 정원 스님에 대해 "적폐청산 촛불과 함께한 수행자"라며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추모제에선 특별한 불교의식 없이 하유 스님의 법고 공양으로 창혼(唱魂)의식을 대신했다. 법고 공양 이후엔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이도흠 조계종적폐청산2기시민연대공동대표,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상임대표,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최창중 민중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추모위원회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악폐가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왕이 되는 것이다. 적폐 세력은 아직 권력을 누리고 있고 민중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명박 前대통령 구속과 미군 철수,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 등을 주장했다.



추모제서는 하유 스님의 법고 공양으로 창혼(唱魂)의식을 대신했다.

이튿날 정원 스님의 법구가 안치된 서울 금산사서 봉행된 추모법회에는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前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도철 · 혜문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 스님,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정원 스님을 추모했다. 특히 이날 청화 스님은 정원 스님의 소신공양이 정권의 부당함에 대한 행위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원 스님은 2017년 1월 7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복궁 앞 공원 열린마당 인근서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했다. 이때 몸 2도, 얼굴 3도 등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고, 1월 9일 6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박진형 기자

선학원 법진 스님 1심서 '징역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 선미모 "즉각 사퇴하라"

법인사무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게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입장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법진 스님은 이사장과 이사, 일체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미모는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 전원 사퇴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등을 촉구했다. 선미모는 "성추행 재판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이사회는 무능력과 부도덕의 극치를 보였다. 법진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상조사위원회를 빙자해 보류하고,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도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분원장 대중공의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